

이덕무 『사소절』의 복식관련 기록에 대한 연구 2

- 「부의」와 「동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cords Related to Dress and Ornaments in *Sasojeol* of Lee Duck-moo's
with Focus on Bueui and Donggyu

한 미 경 (Han, Mi-Kyung)*

◁ 목 차 ▷

- | | |
|------------------|-----------------------|
| 1. 서론 | 3.1 저술 목적과 구성 |
| 1.1 연구의 목적 | 3.2 복식관련 내용 |
| 1.2 연구의 범위 | 4. 종합분석 |
| 2. 「부의」의 복식관련 기록 | 4.1 『사소절』 복식관련 내용의 분석 |
| 2.1 저술 목적과 구성 | 4.2 『사소절』 복식관련 기록의 분석 |
| 2.2 복식관련 내용 | 5. 결론 |
| 3. 「동규」의 복식관련 기록 | <참고문헌> |

< 초 록 >

이 논문은 이덕무 『사소절(士小節)』의 「부의(婦儀)」와 「동규(童規)」에서 다루고 있는 복식관련 기록을 조사 분석하고 나아가 「사전(士典)」을 포함한 『사소절』 세 편의 복식관련 내용과 기록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사전」의 6.7%, 「부의」의 17.24%, 「동규」의 16.92%에서 복식관련 기록이 조사되었으며, 『사소절』 총 914장 중 복식관련 기록은 총 96장(10.5%)에서 조사되었다. 복식관련 기록의 용어의 경우 「사전」은 의복관련 용어가 많았고, 「부의」와 「동규」는 장신관련 용어가 많았다. 인용의 경우 「사전」과 「부의」와 「동규」에서 모두 『예기』와 『시경』을 인용하고 있었으며, 인물들의 일화와 가르침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복식관련 기록의 내용 분석 결과, 「사전」은 복식과 관련하여 기본예의와 마음가짐을 중시하면서 격식과 체면을 위한 복식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부의」는 유행과 사치를 멀리 할 것과 부인의 할 일과 자녀 양육을 위한 어머니로서의 복식관련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동규」에서는 교육 부족과 연달리기 등과 같은 폐해로 인한 의복 예절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교우관계와 교육 및 몸가짐과 품행에서의 복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종합적으로 『사소절』의 복식관련 기록을 통하여 이덕무의 선비와 부인 및 자녀를 위한 작은 예절에 대한 인식과 당시의 시대상과 예절의 단면 등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 연구가 관련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要語: 이덕무, 사소절, 부의, 동규, 복식기록

* 경희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bib4u@kgu.ac.kr)

접수일: 2017년 6월 12일 최초심사일: 2017년 6월 18일 심사완료일: 2017년 6월 20일

<ABSTRACT>

This study consists of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records of *Sasojeol*(士小節) of Lee Duck-moo's related to dress and ornaments which was dealt with in Bueui(婦儀) and Donggyu(童規) and furthermor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records related to dress and ornaments including Sajeon(士典). This study leads to the finding of records related to dress ornaments from 6.7% of Sajeon, 17.24% of Bueui, and 16.92% of Donggyu and from 96 paragraphs (10.5%) of total 914 paragraphs in *Sasojeol*. In terms of terms related to records related to dress and ornaments, Sajeon has more terms related to dress, while Bueui and Donggyu have more terms related to ornaments. In terms of quotations, all of Sajeon, Bueui and Donggyu quoted *Yegi*(禮記) and *Shigyeong*(詩經), presenting the episodes and teachings of persons.

As a result of analysis of records related to dress and ornaments, while Sajeon emphasize the importance of dress and ornaments in terms of etiquette and face saving, while attaching importance on the basic manners and attitude, Bueui advises on the detachment from popular trend and luxury and advice on housewives' job to do and importance of teaching their sons and daughters proper dress and ornament codes as part of their domestic upbringing. Donggyu touches on the problems related to dress codes which were affected by lack of education for children and kite flying, while stressing the importance of dress and ornaments in terms of peer relationship, education, behavior and conduct.

Overall, the records related to dress and ornaments in *Sasojeol* provided us with a glimpse of Duck-moo Lee's view on minor manners for scholars, housewives, and their children and a glance at aspects of the manners of those day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utilized as basic references for the related researchers' future studies.

Key words: Duck-moo Lee, *Sasojeol*(士小節), Bueui(婦儀), Donggyu(童規), records of dress and ornaments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이덕무는 조선후기 북학과 실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생활상의 여러 방면에 필요한 작은 예절을 다루고 있는 수신서 성격의 『사소절(士小節)』을 저술하였다. 이는 이덕무의 대표적인 개인총서로 간행된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6-8에 실려 이후 활자본, 언문본, 현토본, 요약본 등으로 현전하고 있다.

『사소절』은 이덕무 34세이던 영조 51년(1775)에 지은 것으로 『사전(士典)』과 『부의(婦儀)』 및 『동규(童規)』의 세편으로 구분하여 선비와 부녀자 및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일상의 작은 예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1853년 최성환이 『사소절』을 활자본으로 간행하면서 기존의 『사전(士典)』과 『부의(婦儀)』 및 『동규(童規)』의 세편의 체제를 유지하되 전체적으로 재정리하고 각 편마다 세부 구성을 재편집하였다.

『사소절』의 저술은 이덕무가 직접 『사소절서(士小節序)』에서도 밝혔듯이 당시의 소소한 예절에 대한 경시 풍조와 대표적인 예절서였던 주자의 『소학(小學)』 상의 예절을 지키기 어려운 안타까운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즉, 『사소절』은 이덕무 자신의 수신서이자 부인과 아동을 위한 예절서로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것으로 당시의 시대상과 예절의 단면 등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이덕무는 『사소절』에서 당시 여러 방면에 대한 작은 예절들을 기록하면서 복식(服飾)과 관련한 작은 예절들을 언급하고 있다. 복식은 한 시대의 문화적 산물로서 활자본 『사소절』에 세부 구성이 편집되면서 복식(服食, 이하 한자 표기) 중 ‘복(服) 부분에서 복식(服飾, 이하 한자 생략) 관련 부분을 다루고 있다. 한편 본인은 그중 선비의 작은 예절을 기술하고 있는 『사전』의 복식관련 기록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연구는 후속연구로서 부녀자와 아동의 작은 예절 부분인 『부의』와 『동규』에서 다루고 있는 복식관련 기록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사소절』의 『사전』과 『부의』 및 『동규』 세 편에 복식관련 내용과 기록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하여 이덕무의 복식관련 작은 예절에 대한 인식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이 연구의 방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최성환의 활자본 『사소절』 중 『부의』와 『동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사소절』 세 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하여 『사전』의 경우 기존 연구의 결과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둘째, 『사소절』의 『사전』과 『부의』는 ‘복식(服食)’을 별도로 구분하여 ‘복(의복)’과 ‘食(음식)’에 관한 작은 예절을 기술하고 있으나 『동규』는 별도의 ‘복식(服食)’을 세부 구성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의』와 『동규』의 ‘복식’관련 기록 조사 또한 『사전』의 복식관련 기록 연구와 마찬가지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옷과 관련한 ‘복(服)’ 부분과 변체(辮髻)와 갓과 신¹⁾ 등의 장신 등과 관련한 ‘식(飾)’ 부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용어의 경우 ‘복식’을 사용하였다. 한편 사전적으로 용모(容貌)는 사람의 얼굴 모양을 뜻하며, 유의어로 생김새와 차림새 등을 뜻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용모를 다른 부분도 복식관련 기록으로 포함하였다.

넷째, 『부의』와 『동규』의 복식관련 기록의 내용 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내용, 대상, 종류, 용어, 인용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종합분석은 『사소절』 세 편의 복식관련 내용과 복식관련 기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복식관련 기록의 분석은 구성과 용어 및 인용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²⁾

2. 『부의』의 복식관련 기록

2.1 저술 목적과 구성

이덕무는 『사소절서(士小節序)』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내 집 부인을 경계하기 위하여 『부의』를 저술하였음을 밝히고 있다.³⁾ 이어 구체적인 『부의』의 저술 목적에 대하여 『부의』 도입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역경(易經)』의 건곤은 이의가 고르고 『시경(詩經)』의 관저는 이륜을 이루었다. 정숙이 아니면 어떻게 몸을 지키며, 완순이 아니면 어떻게 남을 섬기며, 성결이 아니면 어떻게 신을 흠양시키겠는가? 근검하면 길상이 집중된다.⁴⁾

즉, 이덕무가 『부의』를 저술한 기본 목적은 『역경』의 ‘문(門)’이라 할 수 있는 ‘건곤’을 빌어 양에 순종하며 음에 굳세게 작용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며, 『시경』의 떳떳이 이루어야할 도리인 인륜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어 실제적으로 부인의 정숙과 온순 그리고 성결과 근검을 주목적으로 부의를 지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부의』는 활자본 『사소절』 8권 2책 중 권6-7에 실려 있으며, 총 8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권책과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 1) 선행연구에서는 ‘신’의 경우 별도로 구분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장신의 하나로 분류하였다.
- 2) 종합분석을 위해 『사전』의 경우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한미경, “이덕무 『사소절(士小節)』의 복식관련 기록에 대한 연구 1: 『사전(士典)』을 중심으로,” 『韓國服飾』 38집(2017), 35-58.
- 3) 婦儀以之警戒室婦.
- 4) 易乾坤二義均, 詩關雎造彝倫, 匪淑貞曷守身, 匪順婉曷事人, 匪潔誠曷饗身, 勤暨儉吉咸臻, 撰婦儀.

<표 1> 「부의」의 구성

편 명	책	권	구 분	세 부 구 성			
婦儀	2	6	1(第二之一)	性行	言語	服食	動止
		7	2(第二之二)	教育	人倫	祭祀	事物

이상과 같이 「부의」는 성품과 품행(性行), 언어, 의복과 음식(服食), 행동(動止), 교육, 인륜, 제사, 살림살이(事物)의 여덟 부분으로 구분하여 부인이 경계해야 할 작은 예절을 기술하고 있다.

2.2 복식관련 내용

「부의」를 대상으로 복식관련 기록을 내용, 대상, 종류, 용어, 인용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부록 1>과 같다.⁵⁾ 「부의」의 복식관련 내용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기본예의, 복식관련 격식, 복식의 시대상과 유행, 부인의 할 일과 어머니로서의 가르침, 그 외 성품 또는 마음가짐 등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났다. 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식과 관련한 기본 예의를 다루고 있다. 이는 풍속, 청결, 단정, 언사 등과 함께 지켜야 할 예의로서 많은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⁶⁾

<표 2> 「부의」의 복식관련 기본 예의

구분	주 요 내 용	비 고
부북-6	궤계와 염의를 사대부집에서 이따금 사용하는 데, 속된 풍속에서는 그것을 비웃는 자가 많으니, ... 맨머리로 오랜 세월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궤계를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 장부가 쓰는 입자도 역시 오랑개의 풍속이나 하루아침에 입자를 벗고 다님으로써 남의 눈을 놀라게 할 수는 없지만, 부인은 규문 안에서 날을 보내니 풍속을 놀라게 할 염려가 없다. 더구나 국가에서 새로 변체 금지령을 내렸으니, 구차하게 법을 범해서는 안된다.	● 기본 예의-풍속
부북-13	웬만한 병에는 머리를 빗고 닦을 씻는 일을 폐지해서는 안 되며, ... 부인은 단정하고 정결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요, ... 경강(敬姜)은 ... “부인이 몸매를 단정하게 차리지 않고서는 감히 시부모를 뵈지 못한다.”	● 기본 예의-단정
부북-14	옷고름과 치마끈을 풀어놓고 죄어 매지 아니한 것을 창피라 한다.	● 기본 예의-단정
부동-2	빗을 깨끗이 손질하고 ... 신을 신을 때는 뒤축을 꺾어 신지 말고.	● 기본 예의-단정
부동-3	다닐 때는 신발 끄는 소리를 내고 ... 치마를 돌려 입을 때 거센 바람을 내고 ... 어찌 우아한 부인의 단정한 행동이겠는가?	● 기본 예의-단정
부동-4	다닐 때 치마를 흔들지 말고 ...	● 기본 예의-단정
부동-24	무릇 혼인 연회에 갔을 때는 ... 남의 장식품이나 의복 값의 고하를 묻지 말고 ...	● 기본예의-언사
부사 13	머리를 빗고 나서 떨어진 머리털을 함부로 버려 옷에 묻거나 음식물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 기본 예의-청결
부사 15	머리를 빗고 나서 떨어진 머리털을 함부로 버려 옷에 묻거나 음식물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 기본 예의-청결

5) 이하 각 「부의」와 「사전」의 복식관련 기록들의 번호는 편명의 첫 글자와 2.1과 3.1의 각 편의 구성의 첫 글자를 취하고 순차적으로 다음의 예와 같이 구성하였다. 예: 「부의」의 성행 첫 번째 문장의 경우 ‘부성-1’.

6) 이하 「부의」와 「동규」의 복식관련 기록의 내용은 「국역청장관전서 VI」(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0)을 참고하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편집 및 재정리하였다.

이상과 같이 「부의」의 복식과 관련한 기본 예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본 예의로서 풍속과 관련하여 부복-6에서 사대부집에서는 이따금 사용하는 체계와 염의는 속된 풍속으로 비웃으나 이는 맨머리로 지내는 것보다 체계7)를 쓰는 것이 차라리 기본 예이라 기술하고 있다. 또한 여인들은 규중 안에서만 있으니 이는 풍속을 놀라게 하지 않는 것이며, 변체 금지령이 내렸으니 법을 범할 수는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2) 기본예의로서 단정해야함과 관련하여 부복-13에서는 병이 나도 머리를 빗고 닦을 씻으며, 단정하고 정결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경강(敬姜)의 말을 인용하며 단정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부동-2에서는 빗을 깨끗이 손질하고, 신을 신을 때는 뒤축을 꺾어 신지 말 것을 기술하고, 부동-3에서는 다닐 때는 신발 끄는 소리를 내지 말고, 치마를 돌려 입을 때 거센 바람을 내지 말아야 우아한 부인의 단정한 행동이라 기술하고 있다. 부복-14에서는 단정치 못함이 진정한 창피라고 강조하고 있다.

3) 청결과 관련하여 부동-2에서는 빗을 깨끗이 손질하고, 부사-13에서는 머리를 빗고 나서 떨어진 머리털을 함부로 버려 옷에 묻거나 음식물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부사-15에서는 머리를 빗고 나서 떨어진 머리털을 함부로 버려 옷에 묻거나 음식물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4) 언사에 필요한 기본 예의로 부동-24에서 혼인 연회에 갔을 때는 남의 장식품이나 의복 값의 고하를 묻지 말 것을 기술하고 있다.

둘째, 복식과 관련한 격식을 다루고 있다. 이는 때와 장소 또는 신분과 처지에 맞는 복식의 격식을 기술한 것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부의」의 복식관련 격식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부복-5	남자의 심의, 복건과 부인의 체계, 염의는 제사나 관례 때, 그리고 혼례 때에 착용하는 것이 좋다.	● 격식: 제사, 관례, 혼례에 맞는 의복과 머리 장식
부복-7	상사를 당하였을 때는 머리 땅는 것을 느슨하게 하거나 윤택하게 하지 말고, 경사를 당하였을 때는 머리 땅는 것을 촘촘하게 하거나 더부룩하게 하지 말라.	● 격식: 상사와 경사에 맞는 의복과 머리 장식
부복-15	요즘 부인들은 무색 치마를 즐겨 입어, 거의 과부가 입는 옷과 빗깔과 다르지 않게 한다. 또는 짧은 흰 치마를 먼저 입고 나서 걸치마를 입는데, 무죽오흡이니 무죽칠흡이니 하는 등의 이름이 있게 된다.	● 격식: 격에 맞지 않는 빗깔과 유행의 의복
부복-16	과부의 옷차림은 소복을 입는다는 핑계로 청초한 옷을 입으니, 이것이 어찌 미망인이라 일컫는 의의이겠는가?	● 격식: 미망인의 의복

7) 이는 머리장식 가체로서 시집안간 처녀와 시집간 부인의 구분으로도 사용되었다.

격식에 맞는 복식으로 부복-7은 상사와 경사에 맞는 의복과 머리 장식을 기술하고 있으며, 부복-5는 남자와 부인의 제사, 관례, 혼례에 맞는 의복과 머리 장식을 기술하고 있다. 한편 부복-16에서는 미망인에 맞지 않는 의복을 지적하고 있으며, 부복-15 또한 무색의 과부의 의복을 입거나 대여섯 침을 접어 겨우 무릎에 닿게 해서 걸치마를 괴는 것과 상서롭지 못한 옷을 비판하고 있다.

셋째, 복식에 대한 시대상과 유행을 다루고 있다. 이는 여러 군데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부의」의 복식에 대한 시대상과 유행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부복-1	요즘 세상의 부녀자들은 옷은, 저고리는 너무 짧고 좁으며, 치마는 너무 길고 넓으니, 의복이 요사스럽다.	●부녀 의복의 유행과 비판
부복-2	옷깃을 좁게 깎은 적삼이나 폭을 팽팽하게 붙인 치마는 의복이 요사스럽다.	●부녀 의복의 유행과 비판
부복-3	옛날에는 여자의 옷을 너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집을 때 입었던 옷을 소렴(小斂)하게 쓸 수 있었다 한다.	●부녀 의복의 유행과 비판 ●권장하는 남편의 비판
부복-4	번체(辮髻)는 몽골의 유행이다. 지금 부인들은 비록 마지못해 시속을 따른다 하더라도 사치를 숭상해서는 안 된다.	●몽골 유행의 머리 장식의 유행과 값비쌌고 꾸밈과 무게의 비판 ●가장의 금하지 않음의 비판
부복-5	부녀들의 머리를 땀은 큰 다리와 짧고 좁은 옷은 몽고의 유행이니 거론할 것이 못되거니와, 족두, 복계는 이 또한 무슨 장식인가?	●몽골 유행의 머리 장식과 의복의 유행과 비판
부복-6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오랑캐 부녀의 치장을 마련하는 것과 적은 돈을 들여서 예복을 마련하는 것은, 그 경중 득실이 어떠한가?	●오랑캐 치장의 비판
부복-15	요즘 부인들은 무색 치마를 즐겨 입어, 거의 과부가 입는 옷과 빛깔과 다르지 않게 한다. 또는 짧은 흰 치마를 먼저 입고 나서 걸치마를 입는데, 무족오흡이니 무족칠흡이니 하는 등의 이름이 있게 된다.	●격에 맞지 않는 부녀 의복의 유행과 비판

이상과 같이 이덕무는 당시 의복의 유행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다. 특히 저고리가 짧고, 치마는 너무 길고 넓거나 팽팽하게 붙였거나하여 요사스럽다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부복-3에서 이덕무는 “새로 생긴 옷을 시험 삼아 입어 보았더니 소매에 팔을 꿰기가 몹시 어려웠고, 한번 팔을 꿰기가 몹시 어려웠고, 한번 팔을 구부리면 솔기가 터졌으며, 심한 경우에는 간신히 입고 나서 조금 있으면 팔에 혈기가 통하지 않아 살이 딱 끼어 부어 벗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소매를 찢고 벗기까지 하였으니, 어찌 그리도 요망스런 옷일까?” 라고 하며 몸에 꼭 맞게 입는 옷의 유행에 대하여 요사스럽고 『시경(詩經)』과 『예기(禮記)』의 예가 닮이지 않은 복장이라 개탄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유행을 자기의 처첩에게 권하여 그것을 분반게 하여 서로 전하여 익히게 하는 남자들에 대하여도 비판적이다. 또한 무색의 과부의 의복을 입거나 대여섯 침을 접어 겨우 무릎에 닿게 해서 걸치마를 괴는 것 상서롭지 못한 옷을 비판하고 있다.

한편 몽고 유풍의 유행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특히 부복-4에서 몽골의 유풍인 변체(辮髻)에 대한 기술로서 값이 비싸고 무거우며 어느 한 부자집 며느리가 나이 13세에 다리 때문에 목뼈가 부러져 죽은 예를 들고 있다. 부복-5부에서는 변체 외에 좁은 옷과 족두리 등의 몽고 유풍의 유행 비판하고 있으며, 부복-6에서는 오랑캐 부녀의 치장으로 무족오홉이니 무족칠홉⁸⁾을 지적하고 있다.

넷째, 복식과 관련하여 부인의 할 일로서 기본 도리와 정성 및 손수 할 것과 솜씨 및 이를 위한 기록 참고의 필요성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부의」 복식관련 기록의 부인의 할일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부복-10	남자의 옷을 빨았는데도 때가 아직 남아 있고, 꿰맨 곳이 터지고, 풀찌꺼기가 붙어있고, 다리미 불에 구멍이 나고 구겨지거나 얼룩지고, 넓고 좁음이 척도가 없는 것은 모두 부인의 책임이다. 이상의 일은 사치를 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정성을 들이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부인의 할 일-정성
부복-11	비단을 계란처럼 마전하고, 베를 매미 날개처럼 곱게 다리는 것은 사치를 위함이 아니라, 곧 정성을 들이는 것이다.	●부인의 할 일-정성
부복-12	실을 뽑고 솜을 타며, 옷을 다리고 비단을 마전하는 일은 비록 하인이 있더라도 손수 익혀야 한다.	●부인의 할 일-직접
부복-34	요즈음 풍속에는 서울의 부인들은 베 짜는 것을 알지 못하고, ... 모두 비루한 풍습이다. 베 짜고 밥 짓는 일을 수처로 생각하니, 이들을 부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부인의 할 일-복식
부복-45	민첩하고 야무진 부인은 ... 아무리 낡은 비단과 목은 솜이라도 곱게 재봉하여 모두 몸에 맞는 옷으로 만든다 ... 그러나 용졸한 부인은 ... 화려한 비단도 거칠게 다듬고, 좋은 실과 솜으로도 누추하게 길쌈을 한다. 그러므로 음식에 관한 책과 길쌈에 관한 기록을 보지 않아서는 안된다.	●부인의 할 일 - 솜씨와 기록참고의 필요성

이상과 같이 이덕무는 부인으로서 복식과 관련하여 우선 부복-10과 부복-11에서 부인으로서 의복을 마련하고 세탁 및 수선하는 등의 모든 일은 사치가 목적이 아니라 정성으로 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부복-12에서는 베짜기와 의복 마련은 손수 익혀서 할 일이며, 특히 와 부복-26에서는 맹자 어머니의 부인이 지켜야 할 예절을 인용하며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부복-44에서는 복식관련 할 일 수치로 여긴다고 비평하고 부복3-45에서는 솜씨와 기록 참고를 통해 능숙함을 기를 것을 기술하고 있다.

다섯째, 어머니로서의 가르침과 역할의 중요성, 가르침에 의한 기본적 예의와 마음가짐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8) 치마의 장단 차가 있는 것으로 가지런히 대어섯 첩을 접어 겨우 무릎에 닿게 해서 걸치마를 괴는 것이다.

<표 6> 「부의」 복식관련 기록의 어머니로서의 가르침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부교-1	자고로 현숙한 부인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직 정자의 어머니 후부인은 배울만한 분이다. 정자는 이렇게 말했다. “ ... 그 때문에 우리 형제는 평생 음식과 의복을 가리는 일이 없었고 ... 그것은 성품이 그런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된 것이다. ... ”	●어머니의 가르침: 의복에의 태도
부교-2	혼의에 “부인의 덕과 몸맵시와 일솜씨를 가르친다.”	●어머니의 가르침: 솜씨
부교-10	후세에는 비록 여스승의 가르침이 없기는 하나 ... 길잡하는 일이며 ... 오로지 어머니의 가르침에 의지하게 되고 ... 의복과 음식에 관한 일이며 ... 역시 어머니의 훈계에 의지하게 되니.	●어머니의 가르침: 길잡, 의복, 음식
부교-11	의복 만드는 법과 음식 장만하는 법을 책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처녀를 가르쳐 잘 익히게 하라.	●어머니의 가르침: 의복에의 교육
부사-34	계집중이 여름에 옷을 벗거나 걸터앉거나 ... 호되게 꾸짖어서 규문 안이 숙연하게 해야 한다.	●어머니의 가르침: 아랫사람

이상과 같이 부교-1에서는 정자의 어머니 후부인을 인용하면서 현숙한 어머니로서 자녀의 가르침의 모범이 되어야함을 기술하고 있으며, 『예기』 「혼의」를 인용하며 몸맵시와 일솜씨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부교-10과 부교-11에서는 복식 등의 솜씨에 필요한 어머니의 가르침을 기술하고 있으며, 부사-34는 아랫사람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다.

여섯째, 의복에 대한 마음가짐 또는 성품을 다루고 있다. 이는 부성-17에서 ‘부녀자가 의복과 음식이 남과 같지 못한 것을 견디지 못하면 이는 도둑질할 근본이다’라고 하며 의복의 부족함에 대한 마음가짐과 근본적인 성품을 빗대어 기술하고 있다.

일곱째, 사치하는 시대의 단상을 비판하고 있다. 즉 부복-18에서는 귀금속과 비단으로 어린 남녀를 장식하는 것은 그의 복록을 아껴주는 일이 아닐 뿐 아니라, 불량한 사람의 도둑질하고 해치는 마음을 열어 주는 것이라 기술하고 있다. 부복-20에서는 옛날에는 바늘과 붓을 차서 일용에 대비하고 형거를 차서 위의를 갖추고, 난채를 차서 악취를 제거하였는데, 지금 풍속에서 차는 것은 주렁주렁 하지만, 하나도 실용인 것이 없고 한갓 재전만 허비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그 외 부부 화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복식보다 화목해야할 것을 기술하고 있다. 즉 부인-2에서 부부가 화목하면 비록 거친 밥을 먹고 해진 옷을 입더라도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 하였다. 또한 주의사항으로 부사-35에서 중들의 옷은 남녀를 분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승이라 해서 무조건 문안에 들여서는 안됨을 기술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부의」의 복식관련 기록의 내용은 기본예의로서 단정하고 청결할 것과 복식관련 격식을 강조하고 있다. 시대상과 유행 및 몽고의 유행 그리고 사치하는 풍조에 대한 비평이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의복을 준비하고 솜씨를 갖추어야 하는 부인의 할 일과 의복관련 자녀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 「동규」의 복식관련 기록

3.1 저술 목적과 구성

이덕무는 「사소절서」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자제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동규」를 저술하였음을 밝히고 있다.⁹⁾ 또한 구체적인 「동규」의 저술 목적에 대하여 「동규」 도입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하늘이 부여한 성품을 조금도 사특하게 하지 말고, 아버지가 주신 몸을 조금도 어긋나게 하지 말라. 한번 생각하는 데도 법칙이 있고, 한번 동작하는 데도 규칙이 있다. 너희 의복을 정제하고 음식을 절제하라. 어려서 준칙이 없으면 자라서 더욱 부정해진다.¹⁰⁾

이상과 같이 이덕무는 아이들에게 성품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며 몸은 아버지가 준 것이라 표현하고 생각과 동작에도 법칙과 규칙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유교적 사상에 기반하여 특히 아이들의 의복 정제와 음식 절제 및 준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동규」를 저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규」는 활자본 『사소절』 8권 2책 중 권8에 실려 있으며,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동규」의 구성

편명	책	내용			
童規	8	動止	教習	敬長	事物

이상과 같이 「동규」는 행동(動止), 교습, 어른 공경(敬長), 습관(事物)의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자제들에게 훈계하는 작은 예절을 기술하고 있다.

3.2 복식관련 내용

「동규」를 대상으로 복식관련 기록과 내용, 대상, 종류, 용어, 인용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부록 2>와 같다. 「동규」의 복식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지도와 교육, 몸가짐, 품행, 어른 공경 등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났다. 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童規所以訓夫子弟.

10) 天賦性罔或慝, 親遺身罔或忒. 一念慮咸有則, 一動作咸有式. 整爾衣節厥食, 童無準長益仄. 撰童規.

첫째, 복식관련 지도와 교육의 필요성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버릇 양성, 교우관계, 환경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동규」 복식관련 기록의 아동 지도와 교육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동동-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내아이는 새것을 좋아하여 성벽이 있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한다. 이것은 사치풍조에 빠지기 쉬운 일이니, 부모는 이를 억제하고 검소한 방법으로 유도하여 그로 하여금 소박한 옷을 입게 해야 한다. •또한 헝클어진 머리, 때가 낀 얼굴에 옷과 허리띠를 아무렇게나 몸에 걸치는 아이도 있는데, 이것은 검소한 것이 아니라 누추함에 가까우니, 결코 어진 사람이 될 수 없다. 부모는 이를 억제하고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그로 하여금 깨끗이 씻고 단정히 옷차림을 하도록 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 검소 •지도: 단정
동동-7	어린이가 의복, 음식, 거처 또는 심부름 시키는 일 등이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멋대로 화를 내고 원망을 한다면, 장성하였을 때, 크게는 흉악하고 작게는 잔혹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릴 때 이런 일들에 대하여 선량하고 온순한 버릇을 길러야한 군자가 될 수 있다.	•지도: 선량하고 온순한 버릇 양성
동동-38	... 하인과 놀던 어린애는 비록 장년이 되더라도 언어와 용모가 속된 기운을 벗어나지 못한다. 때문에 자녀를 교육할 때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근실하고 올바른 사람과 놀게 해야 마침내 불초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교육: 교우관계
동동-39	아이가 과거 공부하는 학생들을 따라 문장 공부를 하게 되면, 용모가 단정하지 못하고 언어가 범절이 없고 행동이 경솔해져	•교육: 교우관계
동교-5	예절을 익히는데 있어서는 ... 예의와 절도를 살피고 용모를 점검하여	•교육: 용모
동교-8	율곡 선생은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어린이가 삼가야 할 17조목을 설정하여 ... 팔, 두 손을 단정하지 못하게 마주 잡거나 옷소매를 풀어헤치고 한 다리에 의지해 기대서는 일	•교육: 용모

이상과 같은 사내아이를 양육하면서 일상에서의 복식관련 지도와 교육과 관련 부분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동동-6에서는 사내아이의 성정을 검소하고 단정하게 지도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으며, 동동-7에서는 선량하고 온순한 버릇을 기르도록 지도해야함을 기술하고 있다.

2) 교우관계의 교육과 관련하여 동동-38에서는 교육하여 근실하고 올바른 사람과 놀도록 교육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장성한 후 언어와 용모가 속된 기운을 벗어나지 못함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시경』의 “깊은 골짜기에서 나와 높은 나무로 옮겨 간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동동-9에서도 독서를 강조하던 이덕무는 과거 공부로 문장 공부하게 되면 용모가 단정하지 못하고 언어가 범절이 없고 행동이 경솔해지므로 교우관계 교육이 필요함을 기술하고 있다.

3) 용모 점검의 필요성을 기술하고 있다. 동교-5는 예절 익힘에 용모 점검을 중요성을 기적하고 있으며, 동교-8에서는 율곡 선생의 어린이를 교육할 때 삼가야 할 17조를 인용하여 용모를 단정히 하도록 교육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몸가짐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동규」 복식관련 기록의 아동 몸가짐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동동-11	몸가짐이 안정되지 못한 어린이는 혹 옷고름이나 땀띠를 씌는 데, 나는 그것을 매우 괴이하게 여긴다.	•몸가짐: 안정
동동-12	뭇물을 두 소매로 닦거나, 딸이 아무리 깨끗해도 맨발로 다니면, 추하고 경박하다.	•몸가짐: 청결
동동-18	옷은 동정이 접히지 않게 입고, 바지는 끈이 늘어뜨려지지 않게 입어야 한다. 그리고 앉을 때는 반드시 옷깃을 정제하고, 설 때는 반드시 버선을 단정하게 신어야 한다.	•몸가짐: 단정
동동-19	바지 속이나 호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남 앞에서 이 잡지 말라.	•몸가짐: 예의

이상과 같이 이덕무는 「동규」의 복식관련 기록을 통하여 아동들의 몸가짐에 대하여 동동-11과 동동-12에서 안정되지 못한 괴이한 행동과 청결하지 못한 추하고 경박한 면을 기술하여 몸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동동-18 단정한 몸가짐과 타인과 있을 때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작은 예절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품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동규」 복식관련 기록의 아동 품행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동사-3	세상 교육이 쇠퇴함으로부터 어린이들이 듣고 보는 것은 ... 의복과 신발 등에 관한 일에 불과하고 ...	•품행: 교육 쇠퇴의 폐해
동사-6	어린이는 욕심이 많은 법이니 욕심을 낼 때마다 금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무릇 남의 의복과 기물 등 좋은 물건을 보고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헐뜯지도 말고 훔치지도 말고 빼앗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고 감추지도 말게 하며, ...	•품행: 남의 것 탐내지 말 것
동사-8	어린이가 담배 피우는 것은 아름다운 품행이 아니다. ... 불티는 옷을 태운다.	•품행: 담배의 폐해
동사-9	연을 날리는 놀이는 어린이를 빠지게 만드는 것이니 ... 옷이 찢히고 신발과 버섯이 더럽혀지고 ...	•품행: 연날리기의 폐해
동사-13	무릇 글씨를 익히려고 먹을 갈 때, ... 옷을 더럽히고 ... 아이의 바른 품행이 아니다.	•품행: 먹갈기
동사-15	물기가 있고 맵고 짠 반찬을 맨손으로 집어 먹고 나서 그 손으로 ... 옷설에 닦거나 하지 말라 ...	•품행: 삼가야 할 것
동동-26	... 기름 바른 멀리로 책을 베지 말고 ...	•품행: 삼가야 할 것

「동규」의 복식관련 기록 중에는 아동의 품행과 관련하여 주의하거나 삼가야 할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 동서-3에서는 교육의 쇠퇴함으로 의복과 신발에만 관심을 갖는 폐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동사-6에서는 욕심을 금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 것을 기술하고 있다. 동사-8와 동사-9는 담배와 연날리기의 폐해에 따른 의복과 신발을 더럽히는 품행을 우려하고 있고, 동서-13에서는 먹갈기를 바르게 하지 않아 옷을 더럽히는 등의 바르지 않은 품행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동사-15와 동사-16에서는 바르지 않은 품행에 따른 일상의 삼가야 할 것을 기술하고 있다.

넷째, 어른 공경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동경-7에서는 어른의 갓을 쓰거나 어른의 띠를 띠고서 장난하지 말 것을 기술하고 있으며, 동경-11에서는 어른이 문 밖에 나가려 하거든 반드시 옷과 허리띠, 갓의 먼지를 털어서 드리고, 어른이 밖에서 들어와 옷을 벗으려 하거든 반드시 뒤에서 두

소매를 잡아 벗기어 헛대에 잘 걸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동경-23에서는 손님이나 노인이 오거든 아이는 당에서 내려가 맞아 부축하여 모시고 당에 오르고, 그 지팡이는 벽에 기대놓았다가 그분이 가려고 일어서거든 먼저 신발을 챙기고 지팡이를 받들고서 거둬 또 부축하여 모시고 당에서 내려 갈 것을 기술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동규』의 복식관련 내용은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예절 지도와 교육의 필요성과 몸가짐은 안정되고 청결하고 단정하게 할 것과 품행을 바르게 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교육 쇠퇴로 의복과 신발 등만 보고 듣는 폐해와 담배와 연날리기에 빠져 품행이나 품행이 바르지 못하고 의복 등을 단정히 하지 않는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어른 공경과 관련하여 어른의 갖이나 띠를 가지고 장난하지 말 것과 어른의 외출과 귀가에 따른 해야 할 일 및 손님 공경과 관련한 작은 예절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 종합분석

4.1 『사소절』 복식관련 내용의 분석

『사소절』의 『사전』과 『부의』 및 『동규』 세편의 복식관련 기록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¹¹⁾

첫째, 『사전』과 『부의』 및 『동규』의 복식관련 기록 내용에는 다음의 <표 11>과 같이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사전』과 『부의』에서는 기본 예의와 격식, 복식의 시대상과 유행 및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 반면, 『부의』와 『동규』는 부인의 할 일과 어머니로서의 가르침 그리고 아동의 지도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 등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다.

<표 11> 『사소절』의 복식관련 내용

구분	士典	婦儀	童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예의 ● 체면 ● 마음가짐 ● 복식의 시대상이나 유행 ● 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예의 ● 격식 ● 복식의 시대상과 유행. ● 부인의 할 일 ● 어머니로서의 가르침 ● 성품 ● 마음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와 교육 ● 몸가짐 ● 품행 ● 어른 공경

* 진한색: 주로 강조한 내용

11) 『사전』의 복식관련 기록의 조사는 한미경, “이덕무 『사소절(士小節)』의 복식관련 기록에 대한 연구 1: 『사전(士典)』을 중심으로,” 『韓國服飾』 38집(2017), 35-58 참조.

둘째, 이덕무는 복식과 관련하여 작은 예절의 주요 기준으로 문헌으로는 『시경』과 『예기』를 인용하고 있다. 특히 일예로 부복-3에서는 의복의 요사스러운 시(詩)와 예(禮)가 닳이지 않음이라 기술하고 있다.

셋째, 「사전」과 「부의」 2편에서 이덕무는 당시 의복의 유행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사전」에 비하여 「부의」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특히 시대적 유행 의복과 몽고의 유행 유행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있다.

넷째, 「사전」의 경우 복식과 관련된 기본적인 예의와 체면 및 격식이 강조되고 있으며, 복식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마음가짐에 대한 기술들이 조사되었다. 반면 복식과 관련한 사대부로서의 체면과 격식이 필요함을 기술하고 있다.

다섯째, 「부의」의 경우 복식관련 유행에 대한 비평이 조사되었고, 그러나 기본 예의로서 체계와 엄의는 숙된 풍속이나 기본예의로 맨머리보다 나으며, 법에서 금한 변체보다 나은 풍속이라 기술하고 있다. 한편, 부인으로서 복식과 관련하여 세탁 및 수선하는 등의 모든 일에 정성을 들여 손수 할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맹자 어머니의 부인이 지켜야 할 예절을 인용하고, 기록 참고를 통해 능숙함을 기를 것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로서 베짜기와 수선 등에 대한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섯째, 「동규」의 경우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도와 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몸가짐과 품행 상의 주의사항 및 어른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장성한 후의 용모에 대한 우려를 기술하면서 교우관계의 중요성을 기술하고 있다.

4.2 『사소절』 복식관련 기록의 분석

4.2.1 구성의 분석

「부의」 및 「동규」의 복식관련 기록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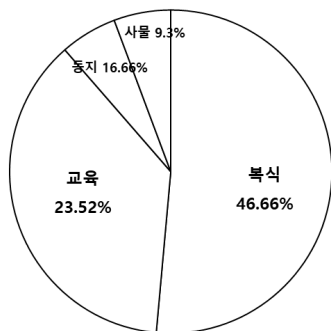
<표 12> 「부의」와 「동규」의 복식관련 기록의 구성

편	구분	세부 구성	장수	복식기록 장수	세부 구성	장수	복식기록 장수	세부 구성	장수	복식기록 장수	세부 구성	장수	복식기록 장수
婦儀	1	性行	24	1	言語	16	0	服食	45	21	動止	24	4
	2	教育	17	4	人倫	26	1	祭祀	8	0	事物	43	4
총 장수: 203			총 복식기록 장수: 35 (총 장수 대비 17.24%)										
편	세부 구성	장수	복식기록 장수	세부 구성	장수	복식기록 장수	세부 구성	장수	복식기록 장수	세부 구성	장수	복식기록 장수	
童規	動止	39	8	教習	37	3	敬長	23	3	事物	31	7	
총 장수: 130			총 복식기록 장수: 22 (총 장수 대비 16.92%)										
士典	총 장수: 581		총 복식기록 장수: 39 (총 장수 대비 6.71%)										
士小節	총 장수: 914		총 복식기록 장수: 96 (총 장수 대비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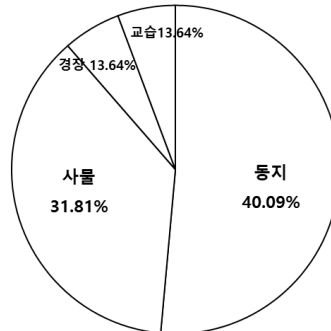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전체 『부의』와 『동규』를 대상으로 조사한 복식관련 기록에 대한 구성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부의』의 전체 203장 중 35장에서 복식관련 기록이 조사되었으며, 이는 총 장수 대비 17.24%이다. 반면 『동규』의 전체 130장 중 22장에서 복식관련 기록이 조사되었으며, 이는 총 장수 대비 16.92%이다. 즉, 『부의』와 『동규』의 의복이나 장신을 대상으로 한 복식관련 기록은 전체 대비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수치를 통해 이덕무는 복식과 관련하여 부인의 경계와 자녀의 훈계를 위하여 어느 정도 작은 예절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소절』 『부의』의 세부 구성 총 18개 부분 중 ‘언어’와 ‘제사’ 부분에서는 복식관련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복식(服食)’ 총 45장 중 21장(46.66%, 전체 35장 대비 60%)에서 복식관련 기록을 하고 있으며, 그 외 ‘교육’, ‘동지’, ‘사물’의 순으로 23.52%, 16.66%, 9.3%로 전체 35장 대비 총 12장(34.28%)에서 복식관련 기록을 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즉 의복과 음식의 작은 예절을 기술하고 있는 ‘복식’과 어머니로서의 가르침을 기술하고 있는 ‘교육’에서 가장 많은 복식관련 기록이 나타났다. 한편 『동규』의 세부 구성에는 ‘복식(服食)’은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 총 4개 부분 모두에서 복식관련 기록이 나타났다. 그중 ‘사물’ 총 31장 중 9장(29.07%, 전체 22장 대비 31.81%)에서 복식관련 기록을 하고 있으며, ‘동지’는 총 39장 중 9장(23.07%, 전체 22장 대비 40.09%)에서 복식관련 기록을 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그 외 ‘경장’은 23장 중 3장으로 13.04%, ‘교습’은 37장 중 3장으로 8.1%로 전체 22장 대비 각각 13.64%씩 복식관련 기록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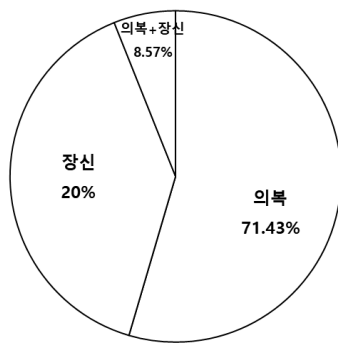
<그림 1> 「부의」 복식관련 기록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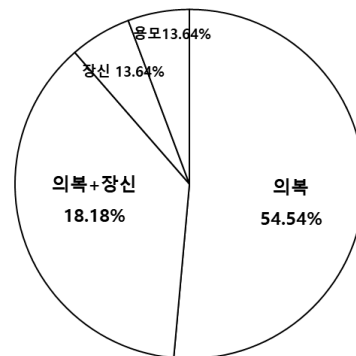
<그림 2> 「동규」 복식관련 기록의 비율

셋째, 『부의』의 복식관련 기록을 의복과 장신 등으로 구분(<부록 1> 참조)하여 살펴보면 전체 복식관련 기록 35장 중 의복 관련 작은 예절 기록은 25장으로 71.43%이며, 의복과 장신을 함께 기술한 장을 포함하면 28장으로 80%가 의복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장신 관련 작은 예절 기록은 7장으로 20%이며, 의복과 장신을 함께 기술하고 있는 장은 3장으로 8.57%이다(<그림 3> 참조). 이를 통해 『부의』는 의복과 장신 중 대부분 의복관련 작은 예절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동규』의 경우 복식관련 기록을 의복과 장신 등으로 구분(<부록 2> 참조)하여 살펴보면 전체 복식관련 기록 35장 중 의복 관련 작은 예절 기록은 22장으로 54.54%이며, 의복과 장신을 함께 기술한 장을 포함하면 16장으로 45.71%가 의복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장신과 용모 관련 작은 예절 기록은 각 3장으로 각 13.64%이다. 그 외 의복과 장신을 함께 기술하고 있는 장은 4장으로 18.8%이다(<그림 4> 참조). 이를 통해 『동규』 또한 의복과 장신 중 대부분 의복관련 작은 예절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 「부외」 복식관련 기록 종류의 비율



<그림 4> 「동규」 복식관련 기록 종류의 비율

종합적으로 『사전』은 전체 581장 중 복식관련 기록 장수가 39장으로 6.71%이며, 『부외』와 『동규』의 경우 각각 전체 대비 복식관련 기록 장수는 35장과 22장으로 17.24%와 16.92%이다. 즉 『사소절』 총 914장 중 복식기록 장수는 총 96장으로 전체대비 10.5%로서 의복이나 장신을 대상으로 한 복식관련 기록은 전체대비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사전』과 『부외』 및 『동규』의 각 세부 구성의 복식관련 기록 비율과 의복과 장신 등의 기록 종류의 비율 또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4.2.2 용어의 분석

『부외』와 『동규』의 복식관련 기록 중에 나타난 복식 관련 용어 중 ‘의(衣)와 ‘복(服) 또는 ‘의복(衣服)’ 등과 같은 대명사적 용어와 ‘빗(梳)’ 등과 같은 일상의 단어를 제외하고 정리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부록 1>, <부록 2> 참조).¹²⁾

12) 용어의 의미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과 『NAVER 사전』(<http://dic.naver.com>)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표 13> 「부의」와 「동규」의 복식관련 용어

출처	용어	종류	의미	
부의	부복-4 부복-5 부복-6 부복-8	辮髻	장신	여자들이 술이 적은 머리에 다리를 덧대어 땀은 가발.
	부복-5	深衣	의복	백세포(白細布)로 만들며 깃과 소매부리 등 옷의 가장자리에 검은 비단으로 선(襖)을 두른다. 대부분의 포(袍)와는 달리 의(衣)와 상(裳)이 따로 재단되어 연결되며, 12폭의 상이 몸을 휩싸게 되어 있어 심원한 느낌을 준다. 복건(幅巾), 대대(大帶), 흑리(黑履)와 함께 착용.
		幅巾	장신	두건.
		鬪髻	장신	부인의 머리 장식으로 철사로 둘레를 만들고 바깥쪽에 머리카락을 싸서 만든 장신.
		袴衣	의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편람』에는 “시속의 부인복이 좁스럽고 천한 폐해가 있으니 여러 가지로 통용할 수 있는 옷 한 벌을 지어 시집갈 때는 붉은 천으로 옷 아랫도리에 배다섯 치 되는 갑으로 단을 쳐서 염이라 하고, 시부모 뵈릴 적과 제례, 빈객 때와 습(襲)할 때에는 모두 단을 떼고 사용하여 소의(宵衣)로 대신하며, 단의(襦衣)는 흰색 천으로 지어 옛적 베로 만든 심의로 대신하여, 초상의 역복(易服) 할 때와 기제(忌祭) 때 입으면 만들새는 간략하고 쓰임은 넓어 올바른 옷에 가까우니 요즘 부인들의 좁스럽고 경박한 옷의 폐해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혼례복으로 염의를 장려하였음. 여기서 염의는 현색(玄色)으로 상의와 하상(下裳)이 붙었으며 옷감은 능기류(綾綺類)를 사용하였다. 안은 소사(素紗)로 하고 혼색(緋色)의 연(緣)을 둘렀으며 일명 순의(純衣)·단의라고도 함.¹³⁾
				簇兜
	北髻	장신		
	부복-6 부복-7	袴衣	의복	상동.
		鬪髻	장신	상동.
		笠子, 笠	장신	갓.
	부복-20	珩珮	장신	‘珩(형)’은 노리개로 패옥 중에서 위쪽의 것이며, 경쇠처럼 생겼으나 그보다는 좀 작다. ‘거(珮)’는 패옥으로 허리띠에 차는 옥임.
		蘭茝	장신	향초의 일종.
		金童	장신	‘금동’은 금으로 동자를 새겨서 만든 머리꾸미개인 듯 하고 ‘은부’는 은으로 도끼를 새겨서 만든 머리꾸미개인 듯 함. ¹⁴⁾
		銀斧	장신	
		香合	장신	잘게 자른 향을 집어넣는 뚜껑이 있는 용기. 향나무의 심재를 잘게 자른 향을 집어넣는 소형의 합.
		龍腦	장신	용뇌향(龍腦香)으로 용뇌수에서 채취하는 것으로 장뇌 비슷한 방향이 있다. 약재의 하나이기도 하며 동인도에서 나는 용뇌수(龍腦樹)의 줄기에서 덩어리로 되어 나오는 무색 투명한 결정체로서 방충제 및 훈향 등으로 씀.
		麝香	장신	사향노루, 사향고양이 등의 수컷의 향낭에서 취한 향료.
	彩纓	장신	고은 빛의 갓끈.	
부동-2	履	장신	신발.	
동규	동동-6 동동-22	衣帶	장신	옷과 띠.
	동동-22	草笠	장신	아이가 어른이 되는 예식인 관례(冠禮)를 한 남자가 쓰던 매우 가는 풀이나 말총으로 결어 만든 누른 빛깔이 갓. 일명 풀갓.
	동교-37	囊笠	장신	도롱이와 샓갓.
	동경7	冠	장신	갓으로 조선시대 성인 남자가 머리에 쓰던 관모.
		帶	장신	띠로서 의복의 허리에 둘러 앞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끈.
	동경-11	帶	장신	
		笠	장신	갓.
동경-23	杖	장신	지팡이.	
	履	장신	신발.	

이상과 같이 조사된 「부의」와 「동규」의 복식관련 용어를 바탕으로 「사전」과 함께 복식관련 용어를 기술한 장과 용어의 종류 등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의 경우 581장 중 복식관련 기록이 조사된 39장 중 구체적인 복식관련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 곳은 총 17장(43.58%)이며, 총 17개의 용어가 조사되었다. 반면 「부의」의 경우 203장 중 복식관련 기록이 조사된 총 35장 중 복식관련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 곳은 9장(25.71%), 총 19개의 용어가 나타났으며, 「동규」의 경우 130장 중 복식관련 기록이 조사된 총 22장 중 6장(27.27%), 총 8개의 용어가 조사되었다.

둘째, 「사전」의 경우 복식관련 용어 17개 중 의복 용어가 12개로 70.58%인 반면 「부의」의 경우 19개 용어 중 의복 용어가 3개로 15.78%이고 그 외 대부분이 장신관련 용어이며 「동규」의 경우 8개의 용어가 모두 장신관련 용어이다. 즉, 「부의」에서는 머리장식과 관련한 ‘변체’와 같은 기술이 많이 나타났고, 「동규」에서는 주로 갓과 띠와 같은 장신 용어가 대부분이었다.

셋째, 그 외 대부분의 의복에 대한 용어의 경우 「사전」과 마찬가지로 「부의」와 「동규」는 ‘의(衣)’, ‘복(복)’, ‘의복(衣服)’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부의」의 경우 ‘상의(上衣)’ 외에 치마를 뜻하는 용어로 ‘상(裳)’, ‘하상(下裳)’, ‘의상(衣裳)’ 외에 부동-3과 부동-4에서는 ‘군(裙)’으로 표현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복식관련 기록에서 보이는 용어로 「사전」에서는 적삼, 도포, 저고리, 옷웃 등과 같은 의복관련 용어가 조사된 반면, 「부의」와 「동규」는 주로 장신관련 용어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이덕무가 선비의 입장으로 「사전」에서 보다 다방면으로 구체적인 작은 예절을 기술하면서 의복과 관련한 기본 예의와 격식과 체면을 중시한 것이 이유의 한 측면으로 보인다. 또한 「부의」에서는 의복과 장신과 관련하여 주로 유행의 요사스러움과 사치를 삼갈 것과 베짜기와 솜씨 등의 부인의 할 일과 어머니로서의 가르침으로 주로 기술하고, 「동규」에서는 몸가짐과 품행 그리고 어른 공경을 주로 기술한 것도 또 다른 까닭으로 보인다.

4.2.3 인용의 분석

「부의」와 「동규」의 복식관련 기록 중에 나타난 인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4>와 같다.

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혼례복(婚禮服) 신부복식.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8197&cid=46671&categoryId=46671> >

14) 「국역청장관전서 VI」 「사소절」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0), 127, 주40과 41.

<표 14> 「부의」와 「동규」의 복식관련 기록의 인용

출 처	인 용		인 용 내 용	기 록 내 용	
부의	부복-8	『禮記』 「內則」	『예기』는 중국 한(漢)나라 시대 편찬의 고대 유가(儒家)의 경전이다. 「내칙」은 편명(篇名)으로 '내(內)'는 여자들이 거처하는 규문(閨門)안으로, 주로 규문 안에서 행하는 예절이나 의식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더러운 옷과 이불의 속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기본적 예의 - 드러내지 않기
	부복-13	敬姜	중국의 춘추시대 노(魯) 나라 문백(文伯)의 어머니	“부인이 몸매를 단정하게 차리지 않고서는 감히 시부모를 뵈지 못한다.”	●격식-단정, 기본 예의
	부복-27	孟母	孟子(BC 372년?~BC 289년?)는 유학자로서 중국 전국 시대 추(鄒)나라 사람이다. 맹모는 맹자의 어머니이다.	“부인이 지켜야 할 예절은 다섯 가지, 밥을 깨끗이 짓고, 술독과 장독을 잘 닦으며, 시부모를 잘 봉양하고, 옷가지를 잘 꿰맬 뿐이다.”	●부인의 할 일, 도리
	부교-1	程子母侯夫人	중국 송(宋)나라 정자의 어머니 후부인	자고로 현숙한 부인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직 정자의 어머니 후부인은 배울만한 분이다.	●기본예의, 마음가짐
		程子	중국 송 나라 학자 정호(程顥), 또는 정이(程頤)의 존칭	정자는 이렇게 말했다. ... 그 때문에 우리 형제는 평생 음식과 의복을 가리는 일이 없었고 ... 그것은 성품이 그런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된 것이다. ...	●기본예의, 마음가짐
부교-2	『禮記』 「昏義」	『예기』의 第44章 「혼의」는 관의(冠義), 사의(射義), 연의(燕義), 병의(聘義)와 함께 길사(吉事)의 하나이다.	부교-2 혼의에 “부인의 덕과 몸매시와 입숨씨를 가르친다.” 해석하여 말하기를 ... 몸매시란 곱게 꾸미는 것을 이룸이 아니요 ...	●가르침 - 마음가짐	
동교	동동-38	『詩經』	고대 중국의 시가를 모아 엮은 오경(五經)의 하나	“깊은 골짜기에서 나와 높은 나무로 옮겨 간다.”	●교우관계
	동교-8	栗谷 教小兒 17條	이이(李珣, 1536-1584, 중종31-선조17), 조선 중기의 학자이며 정치가이다.	“...팔, 두 손을 단정하지 못하게 마주 잡거나 옷소매를 풀어헤치고 한 다리에 의지해 기대서는 일 ...”	●교육
	동교-37	趙重峯	1544-1592(중종 39-선조 25),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유학자이며 의병장이었다. 본관은 배천(白川), 자는 여식(汝式), 호는 중봉(重峯)·도원(陶原)·후율(後栗)이다.	... 어릴 때부터 학문을 즐겼다. 옷과 신이 다 헤어져도 스승을 따르는 데는 눈비를 피하지 않았다. ... 비가 오면 샓갈 밑에서 책을 펴두고 골똘히 연구하였다. ...	●마음가짐 - 의복보다는 학문 정진

이상과 같이 조사된 「부의」와 「동규」의 복식관련 기록의 인용 상황을 「사전」과 함께 인용 경전과 인물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의 경우 복식관련 기록 39장 중 경전 또는 인물을 인용한 곳은 5장이며, 2개의 경전과 4명의 인물의 일화나 시 등을 인용하고 있다. 「부의」의 경우 35장 중 경전 또는 인물을 인용한 곳은 5장이며, 1개의 경전과 4명의 인물의 일화나 말씀 등을 인용하고 있으며, 「동규」의 복식관련

기록의 인용 경전 또는 인물을 인용한 곳은 3장이며, 1개의 경전과 2명의 인물의 가르침과 일화 등을 인용하고 있다.

둘째, 경전의 경우 『예기』와 『시경』이 인용되고 있으며, 『사전』에서는 두 경전을 모두 인용하고 있다. 반면, 『부의』에서는 『예기』의 두 편인 「내칙」과 「훈의」를 두 곳에서 인용하고 있으며, 『동규』에서는 『시경』을 인용하고 있다.

셋째, 인물의 경우 『사전』은 조선시대 학자인 조목(趙穆)과 조연구(趙衍龜) 및 유형원(柳馨遠)의 일화와 중국 명나라 학자인 노탁(魯鐸)의 시를 인용하였다. 반면, 『부의』에서는 중국 노(魯) 나라 문백(文伯)의 어머니 경강과 정자 어머니 후부인과 맹자 어머니의 일화를 인용하고 있으며, 『동규』에서는 율곡의 어린아이 가르침 조목과 조중봉의 학문 정진의 자세를 인용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덕무는 복식관련 작은 예절을 기술함에 있어 『사전』과 『부의』와 『동규』에서 대표적인 예를 다루는 유가경전인 『예기』와 인간 정서를 다루고 있는 『시경』을 인용하는 한편, 선비와 부인 및 아동에 적절한 실존 인물들의 일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결 론

이덕무의 『사소절』은 선비의 수신과 부인의 경계 및 자녀의 훈계를 위한 대표적인 수신서의 하나로서 『사전』과 『부의』 및 『동규』의 세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선비의 작은 예절을 기술하고 있는 『사전』의 복식관련 기록을 선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연구는 후속연구로서 『부의』와 『동규』에서 다루고 있는 복식관련 기록을 조사 분석하고 나아가 『사소절』 세 편의 복식관련 내용과 기록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1775년에 이덕무는 『사소절』을 『사전』과 『부의』 및 『동규』의 세편으로 저술하였으며, 이는 이덕무 사후에 후손과 지인의 정리를 거쳐 개인 총서인 『청장관전서』에 실려 전하게 되었다. 이후 『사소절』은 1853년에 최성환이 활자본으로 간행하면서 지금의 각 세부 구성으로 재정리 및 편집한 것이다. 다만 『사전』과 『부의』의 경우 세부 구성의 하나로 의복과 음식에 대한 ‘복식(服食)’을 재구성하고 『동규』의 경우 ‘복식(服食)’을 재구성하지 않았기에, 이 연구에서는 각 편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복식관련 기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전』은 총 581장 중 39장(6.7%), 『부의』는 203장 중 35장(17.24%), 『동규』는 130장 중 22장(16.92%)에서 복식관련 기록이 조사되었으며, 『사소절』 전체 914장 대비 복식관련 기록은 총 96장으로 10.5%에서 조사되었다. 『사전』과 『부의』 및 『동규』의 복식관련 기록에서 나타난 용어의 경우 『사전』은 의복관련 용어가 많고, 『부의』와 『동규』는 장신관련 용어가 많다. 경전 인용의 경우 『사전』과 『부의』와 『동규』에서 모두 대표적으로 예를 다루는 『예기』와 인간 정서를 다루는 『시경』을 인용하고 있으며, 선비와 부인 및 아동의 사례에 적절한

조선과 중국의 인물들의 일화와 가르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복식관련 기록의 내용 분석 결과, 선비의 수신을 목적으로 저술된 『사전』에서는 복식과 관련하여 기본예의와 마음가짐을 중시하면서 격식과 체면을 위한 복식을 강조하고 있다. 부인의 경계를 목적으로 저술된 『부의』에서는 유행과 사치를 멀리하되 기본예의와 법도에 따른 복식을 강조하며, 의복 준비와 관련한 부인의 할 일과 현숙한 어머니로서 복식관련 자녀 양육을 위한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자제의 훈계를 목적으로 저술한 『동규』에서는 교육 부족으로 의복과 신발에만 관심가지는 폐해와 연날리기 등과 같은 오락의 폐해로 인한 단정하고 청결한 의복 정제의 어려움을 지적하였으며, 교우관계에 따른 장래 용모예의 영향과 지도와 교육의 중요성 및 복식을 통한 단정하고 바른 몸가짐과 품행을 강조하였다.

『사소절』은 18세기 말 조선시대의 소소한 예절에 대한 경시 풍조와 일상의 작은 예절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끼면서 이덕무 자신의 수신서이자 부인과 아동을 위한 예절서로서 저술된 것이다. 『사전』과 『부의』 및 『동규』에서 각각 기술되고 있는 복식관련 작은 예절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이덕무가 인식하는 일상생활 전반의 선비의 수신과 부인의 경계 및 자녀의 훈계를 위한 당시의 시대상과 예절의 단면 등을 엿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사소절』에 대한 서지적 연구와 더불어 관련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士小節』.

『靑莊館全書』.

『국역청장관전서 V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0.

박영관. “아정 이덕무의 《사소절(士小節)》에 나타난 전통 가정교육의 현대적 의의: <부의(婦儀)>편을 중심으로.”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논문집』 3권 2호(2002). 281-298.

이민주. “『星湖僿說』 『만물문』에 보이는 복식기록 검토: 시각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동아시아고대학』 26집(2011). 101-145.

李乙煥. “『士小節』에 나타난 女性 言語法道の 研究.” 『亞細亞女性研究』 25집(1986). 107-132.

장동우. “이덕무(李德懋)의 예 인식과 그 이념적 지향: 『사소절(士小節)』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10집(2005). 191-217.

장숙환. “『林園十六志』에 나타난 服飾에 대한 研究: 服飾之具를 中心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2집(2010). 35-49.

주영애. “사소절(士小節) 부의(婦儀)에 나타난 주생활 관리에 관한 내용분석.” 『대한가정학회』 35권

書誌學研究 第70輯(2017. 6)

1호(1997). 75-8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한미경. “이덕무 『사소절(士小節)』의 복식관련 기록에 대한 연구 1: 『사전(士典)』을 중심으로.” 『韓國服飾』 38집(2017). 35-58.

한예원. “『사소절』을 통해 본 조선후기 사족가의 규범의식에 대한 일고.” 『대동문화연구』 31집(1986). 179-203.

황봉덕. “사소절(士小節)을 통해본 조선후기 사회상: 놀이, 복식, 잡술을 중심으로.” 『포은학연구』 18집(2016). 209-237.

NAVER 사전. <<http://dic.naver.com>>.

<부록 1> 「부의」의 복식관련 기록

구분	내 용	비 고	
부의 복식	부성-17 婦人女子, 不耐衣服飲食之不如人, 是盜竊之本也.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마음가짐 ●종류: 의복 	●용어: 衣服
	부복-1 時世之服, 上衣太短窄, 下裳太長博, 服妖也.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의복의 시대상과 유행 ●종류: 의복 	●용어: 服, 上衣, 下裳
	부복-2 削衿之衫. 撐幅之裙. 服妖也.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의복의 시대상과 유행 ●종류: 의복 	●용어: 衿, 衫, 裙, 服
	부복-3 嘗聞父老之言, 古者女服寬製, 故嫁時之衣, 可爲小斂之用. 生死老少, 體大小不同, 則其衣之不窄, 可知也. 今則不然, 試着新衣, 穿袖甚難, 一屈肘而縫綻, 甚至纒著逾時, 臂氣不周, 脹大難脫, 刳袖而救之, 何其妖也. 嘗大抵粧飾衣裝, 號爲時樣, 皆出娼妓狐媚. 世俗男子, 沈溺不悟, 勸其妻妾, 使之倣倣, 轉相傳習, 嗚呼, 詩禮不修, 而閨人妓裝凡百, 婦人其宜亟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의복의 시대상과 유행 ●종류: 의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용: 父老之言, 詩禮 ●용어: 女服, 衣, 新衣, 袖, 衣裝, 妓裝
	부복-4 辮髻, 蒙古之遺風. 凡今婦人, 雖隱忍從俗, 不可務尙侈大. 貴富家, 費錢至七八萬, 廣蟠側繞, 作墮馬勢, 飾以雄黃版, 法琅簪, 眞珠縵, 其重幾不可支. 家長不能禁, 婦女愈侈而愈恐其不大. 近有富家婦年方十三, 辮髻高重, 其也舅入室, 婦遞起立, 髻壓而頸骨折, 侈能殺人, 嗚呼悲矣.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장신의 시대상과 유행 ●종류: 장신-머리 	●용어: 辮髻, 髻
	부복-5 丈夫深衣幅巾, 婦人鬢髻袂衣, 祭祀冠昏服之禮可也. 婦女之辮髻大髻, 短窄之衣, 蒙古遺俗, 固不足說. 至於簇兜北髻, 是何等裝也.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의복과 장신의 시대상과 유행-제사, 관례 ●종류: 의복, 장신-머리 ●대상: 여자, 남자 	●용어: 남자-深衣, 幅巾 여자-鬢髻, 袂衣, 簇兜, 北髻
	부복-6 鬢髻袂衣, 士夫家往往行之, 鄙野之俗, 非笑者多, 是膠痼俗習, 而不識禮意也. 貧家女子, 嫁夫多年, 坐於不備辮髻也. 平頭者多, 與其平頭多年, 無寧卽加鬢髻, 且多費錢財, 辦此胡婦之裝, 與少費錢財, 能行禮服, 其輕重得失, 顧何如哉. 丈夫笠子, 亦是夷俗, 然不可一朝, 脫笠而行, 以駭目, 至於婦人, 及日於閨門之內, 不足慮其駭俗也. 其朝家新下辮髻之禁, 則不價苟且犯法, 一返禮俗, 有何不可.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기본적인 예의-의복, 풍속 ●종류: 의복, 장신 ●대상: 여자, 남자 	●용어: 여자-鬢髻, 袂衣, 辮髻 남자-笠子, 笠
	부복-7 喪辮髻勿纏而澤也. 吉辮髻, 勿促而蓬也.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기본적인 예의-장신, 풍속-장례 ●종류: 장신 	●용어: 辮髻
	부복-8 澣濯褻服, 張曬屏處. 禮曰: “褻衣衾, 不見裏.”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기본적인 예의-드러내지 않기 ●종류: 의복 	●용어: 服, 衣 ●인용: 『禮記』「內則」

구분	내 용	비 고
	부록-9 …巾幌櫛匣, 亦藏屏處. 鑷篋捫子捎蕙櫛. 男女不相通用.	●내용: 기본적 예의-드러내지 않기, 남녀유별 ●종류: 장신 ●용어: 巾幌, 櫛, 鑷, 篋
	부록-10 男子之衣, 澣有餘垢, 縫有疏綜, 膠堆米粉. 熨穿火星, 縐趨斑班, 寬窄無度, 婦人之責也. 匪爲期其侈也. 迺欲致其功也.	●내용: 기본적 예의-부인의 할 일-정성 ●종류: 의복 ●용어: 衣
	부록-11 研帛如鷄卵, 熨布如蟬翅, 匪爲侈也. 迺其功也.	●내용: 기본적 예의-부인의 할 일-정성 ●종류: 의복
	부록-12 紡絲彈綿, 熨衣搗帛, 雖有婢侍, 手自習之.	●내용: 부인의 할 일-정성 ●종류: 의복 ●용어: 衣
	부록-13 有小疾, 不可廢梳頰面, 雖貧衣必澣滌, 婦人貴端潔, 匪謂容悅於夫主, 靚妝艷服者, 妖婦也. 亂髮垢頰者, 懶女也. 敬姜曰, 婦人不飾, 不敢見舅姑.	●내용: 체면-단정과 정결의 예의-부인의 예의 ●종류: 장신 ●용어: 梳, 衣, 服 ●인용: 敬姜
	부록-14 衣紐裙帶踈放, 不能緊束, 命曰: ‘猖披’.	●내용: 체면-단정 부인의 예의 ●종류: 의복 ●용어: 紐衣, 裙帶
	부록-15 近日婦人, 喜着澹色之裳, 幾與嫗婦所服不甚異也. 又先着短小白裳, 然後繁裳也. 有無足五合七合等之號, 婦人善道拘忌邪說, 而着此不祥之服, 夫何故也.	●내용: 격식-부인의 의복-시대상과 유행 ●종류: 의복 ●용어: 裳, 服
	부록-16 嫗婦之服, 藉澹素而致鮮楚, 是豈稱未亡人之義也哉.	●내용: 격식-부인의 의복-과부 ●종류: 의복 ●용어: 服
	부록-18 金珠繡綺, 裝飾幼男女, 不惟匪所以惜其福也, 亦啓不良之人, 盜竊戕害之心也.	●내용: 사치-의복예절-어린남녀-도둑 유발 ●종류: 장식
	부록-20 古者佩用鍼, 筆以備日用, 玳瑁以叶威儀, 蘭茝以辟穢惡. 今俗所佩琥珀珊, 翡翠, 三珠, 珠冕, 金蠶, 鏤玉, 方版, 流蘇, 彩纓, 累累若若, 無一寬用, 徒費錢財. 至若穿頂金童, 近於物妖, 無柄銀斧, 匪象女器, 惟堪佩者合香, 而腦麝雖非正香, 猶有容臭之義焉.	●내용: 사치, 단장-장신예절-남녀 ●종류: 장신 ●대상: 남자, 여자 ●용어: 玳瑁, 蘭茝, 琥珀, 彩纓, 翡翠, 三珠, 珠冕, 鏤玉, 方版, 流蘇, 銀斧, 香合, 龍腦, 麝香
	부록-26 …故孟母之言曰, 婦人之禮, 精五飯, 羶酒漿, 養舅姑, 縫衣裳而已矣.	●내용: 할 일-부인의 기본 도리 ●종류: 의복 ●인용: 孟母 ●용어: 衣裳
	부록-44 …今之俗, 京婦人, 不解織布 …皆陋習也. 織布炊飯, 視以爲羞恥, 是可謂之婦人乎.	●내용: 할 일-부인의 기본 도리 ●종류: 의복
	부록-45 精敏之婦 …雖爛帛陳絮, 縫裁新整, 皆便體也. 庸拙之婦 …綺羅之燦焉, 而研熨之麤焉. 絲絛之良焉, 而紉裝之陋焉. 膳書鍼史, 不可不看.	●내용: 할 일-부인의 기본 도리 ●종류: 의복

구분	내용	비 고	
동지	부동-2 淨刷梳櫛 … 躡履勿挫 … .	•내용: 기본적 예의-청결, 단정, 격식 •종류: 장신	•용어: 梳櫛, 履
	부동-3 行無履聲 … 回裙生颯 … 豈令媛之端儀也.	•내용: 기본적 예의-청결, 단정, 격식 •종류: 의복, 장신	•용어: 裙
	부동-4 行步勿搖裙 … .	•내용: 기본적 예의-청결, 단정, 격식 •종류: 의복	•용어: 裙
	부동-24 凡赴姻宴會 … 毋問人首飾衣裙價值高下 … .	•내용: 기본적 예의-언사 •종류: 의복	•용어: 衣
교육	부교-1 古來婦人賢淑, 非不多也, 惟程子母侯夫人, 可學也, 程子曰: “ … 故願兄弟平生於飲食衣服, 無所擇, 不能惡言罵人, 非性然也, 教之使然也… ”	•내용: 어머니의 가르침-기본적 예의, 마음가짐 •종류: 의복	•인용: 程子 •용어: 衣服
	부교-2 昏義曰, 教以婦德婦言婦容婦公, 釋之曰, … 容非艷媚之謂也 … .	•내용: 어머니의 가르침-마음 가짐 •종류: 의복	•인용: 『禮記』 「昏義」
	부교-10 後世雖亂傳姆之訓 … 紡織裁縫 … 專憑母教 … 衣服飲食 … 亦資母訓 … .	•내용: 어머니의 가르침-중요성 •종류: 의복	•용어: 衣服
	부교-11 縫裁衣服, 調飪飲食之法, 筭記以爲譜簿, 必教室女.	•내용: 어머니의 가르침-중요성 •종류: 의복	•용어: 衣服
인륜	부인-2 室家和樂, 雖疏食惡衣, 不勝其歡娛, 夫妻反目, 雖綺服珍膳, 不任其愁嘆 … .	•내용: 부부의 화목 •종류: 의복	•용어: 衣, 服
사물	부사-13 不可亂棄梳餘之髮, 纏於衣間, 蟠於餐中.	•내용: 기본 예의-청결 •종류: 의복	•용어: 衣
	부사-15 廚上之烟煤, 藻井之蛛絲, 人所罕見而不察, 然衣巾之不潔, 飲饌之不精, 皆由於此, 日月詳檢, 隨有而隨除之可也.	•내용: 기본 예의-청결 •종류: 의복	•용어: 衣
	부사-34 女奴, 署月裸衣, 或踞坐, 或穢言, 痛加呵責, 閨門之內肅如也.	•내용: 가르침-아래사람-기본예의 •종류: 의복	•용어: 衣
	부사-35 僧尼之服, 不分男女, 莫曰尼女僧也, 許入其門.	•내용: 가르침-남녀구분 •종류: 복식: 복	•용어: 服

<부록 2> 「동규」의 복식관련 기록

구분	내용	비고	
동규	동동-6 童子之性, 有癖於鮮新, 試影自嬌者, 此易入於奢汰, 父母抑而矯之以儉, 使衣麤樸之服也. 亦有亂頭垢貌, 不修衣帶, 此非儉也. 近於庸陋, 不足爲賢, 父母抑而矯之以精, 使之洗濯整飭, 無至率也.	•내용: 지도-기본 예의-소박, 청결, 단정 •종류: 의복, 장신	•용어: 服, 衣帶
	동동-7 凡衣服飲食居處使令, 若不適意, 姿行恚恨, 及其壯大, 大則凶悖, 小則苛刻. 故方其幼時, 於此等事, 養成良吉溫善之習, 然後可以作君子矣.	•내용: 지도-선량하고 온순한 버릇 양성 •종류: 의복	•용어: 衣服
	동동-11 童子之容止不安靜者, 或口齧衣係髮組, 余甚怪之.	•내용: 몸가짐-안정 •종류: 의복	•용어: 衣
	동동-12 鼻涕拭雙袖, 階庭雖乾淨, 徒跣而行, 麤與忙也.	•내용: 몸가짐-청결 •종류: 의복	•용어: 袖
	동동-18 衣勿摺領, 袴勿拖組, 坐必整裾, 立必齊襪.	•내용: 몸가짐-단정 •종류: 의복	•용어: 衣, 領, 袴, 組
	동동-19 勿納手于袴, 對人勿捫蝨.	•내용: 몸가짐-예의 •종류: 의복	•용어: 袴
	동동-22 勿摩弄客筴, 勿以亂筆點流, 他人筴及草笠衣帶.	•내용: 행동-예의 •종류: 장신	•용어: 草笠, 衣帶
	동동-38 厭避長者, 甘處下流, 最是日入於庸賤陋惡, 幼於僂人遊者, 雖至壯大, 言語容貌, 終未超脫俚俗之氣, 故教子弟必使之從遊醇謹雅飭之人, 方不竟抵于不肖. 詩云, 出自幽谷, 遷于喬木.	•내용: 교육-인간관계 •종류: 용모	•인용: 『詩經』
	동동-39 童子隨科舉諸生, 課習文字, 容貌不端, 言語無節, 輕浮淺薄	•내용: 교육-인간관계 •종류: 용모	
	동교-5 . 凡習禮 ... 度其容止	•내용: 교육-예절 •종류: 용모	
동교-8 栗谷先生教小兒, 有十七條, 重則一犯論罰, 輕則三犯論罰. 曰: ... 拱手不端放袖跛倚	•내용: 교육-예절-단정 •종류: 의복	•인용: 栗谷 •용어: 袖	
동교-37 ... 趙重峯先生, 自幼嗜學, 衣履盡破, 而從師不避風雪 ... 天雨則披卷子蓑笠之下	•내용: 마음가짐 •종류: 의복	•인용: 趙重峯 •용어: 蓑笠, 衣	
동경-7 勿服長者冠帶以爲遊戲	•내용: 어른 공경 •종류: 장신	•용어: 冠帶	
동경-11 長者欲出門必拂衣帶, 刷笠以進, 長者自外歸, 欲褪衣, 必從後執兩袖以脫之, 擗掛櫛貼如也.	•내용: 어른 공경 •종류: 의복, 장신	•용어: 衣帶, 笠, 衣, 袖	

구분	내 용	비 고	
사물	동경-23 賓客者老者來, 童子下堂肅迎, 扶護以上, 以其杖倚于壁間, 俟其起而先整履奉杖, 仍又扶護下堂.	•내용: 어른 공경 •종류: 의복, 장신	•용어: 杖, 履
	동사-3 自世教之衰, 童孺之所聞見, 不過 … 衣履等事 … .	•내용: 품행 •종류: 의복, 장신	•용어: 衣, 履
	동사-6 童子多欲, 隨發而禁, 可爲吉人. 凡見人之衣服·器用·玩好之物, 勿羨也, 勿訾也, 勿偷也, 勿奪也, 勿易也, 勿匿也. … .	•내용: 품행-남의 것에 대한 욕심 버리기 •종류: 의복	•용어: 衣服
	동사-8 童子吸煙, 非美行也 … 殘燼燕衣服 … .	•내용: 품행-담배 •종류: 의복	•용어: 衣服
	동사-9 紙鳶之戲, 童子皆狂 … 破衣袴汗鞋襪 … .	•내용: 품행-연날리기 놀이의 폐해 •종류: 복식: 의복	•용어: 衣, 袴, 鞋, 襪
	동사-13 凡習字磨墨 … 澆衣服 … 非重則也.	•내용: 품행-먹갈기 •종류: 의복	•용어: 衣服
	동사-15 濡濕辛鹹之饌, 勿徒手而 … 拭衣襟 … .	•내용: 품행-삼갈 것 •종류: 의복	•용어: 衣襟
	동사-26 … 油頭勿枕書 … .	•내용: 행-삼갈 것 •종류: 장신	

